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은 축구공을 쫓는 남학생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나는 늘 그 가장자리 그 늘진 곳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기만 했다. 여학생들 대부분이 그랬다. 우리에게 운동장은 구경하는 곳이었지 뛰어드는 곳이 아니었다. 아무도 그렇게 정해놓은 적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당연한 질서가 되어 있었다.

그 질서에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된 건 한 기사를 읽고 나서였다. '원더티쳐'

여성 체육 교사들의 공동체. 2022년 160명이 넘는 교사들이 모여서 여학생들도 운동장 중앙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일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여학생 체육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다. 교사들은 여학생들이 참여하기 쉬운 종목의 동아리를 만들고 체육 수업의 방식 자체를 바꿔나갔다. 먼저 시작한 소수의 여학생들이 파장을 일으켰다.

‘나도 해볼까?’ 라는 자발적 참여가 시작되었다. 한 학교의 여학생 풋살팀 결성 초기엔 5명이었지만 1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그 파장은 나에게도 도달했다. 기사를 읽으며 나는 부끄러움과 반가움을 동시에 느꼈다. 그동안 내가 문제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왔다. 나는 운동을 좋아하지만 같이할 여학생이 없어서 운동장을 사용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었다. 나 역시 여학생들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학생들이 다친다는 핑계로 끼워 주지 않았던 일,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 점령한 운동장 구석에서 대기하던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 “여학생은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만든 건 아니었을까. 그건 취향이 아니라 학습된 체념이었다.

반가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구조는 바꿀 수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원더티쳐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과제를 남겼다. 나는 학생으로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나는 여학생 스포츠 동아리를 만들기로 했다. 막막했다. 체육 선생님을 찾아가 취지를 설명했을 때 돌아온 첫 반응은 “여학생들이 정말 신청할까?”라는 우려 섞인 질문이었다. 나는 그 질문 자체가 우리가 마주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여학생들이 운동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할 기회와 환경이 애초에 마련되지 않아서이다.

관심을 유도하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여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체중 관리 동아리 만들었다. 처음엔 학교에 설치된 러닝머신을 이용해 서로 목표량을 인증하며 기초 체력을 키웠고 배드민턴과 줄넘기 같은 가벼운 종목을 골랐다. 실력이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여 자체가 목표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처음 운동장으로 나가 전력 질주하며 친구들과 느낀 해방감은 스포츠 동아리를 지속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동아리를 운영하며 가장 크게 배운 건 평등은 같은 것을 나눠주는 일이 아니라 다른 출발선을 알아차리는 일이라는 것이었다. 남학생들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을 준다고 저절로 공평해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위축되어 있던 사람에게는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는 과정이 필요했다. 원더티쳐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제도를 설계했던 것처럼 나도 나름의 방식으로 그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워갔다.

여전히 운동장의 절반은 남학생들의 것이지만 이제 나머지 절반도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 변화는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러닝머신 몇 걸음에서 시작되었다.

원더티처 기사를 읽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운동장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른들이 만든 변화를 지켜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도 내가 선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걸 그 기사가 알려주었다. 양성평등은 누군가 완성해서 물려주는 결과물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이어 던져야 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나는 운동장에서 배웠다.

“운동장은 시설이 아니라 기회다. 그 기회는 성별과 상관없이 공평해야 한다.”